

PA-60

이상기상에 따른 식량작물 피해 및 작물재해보험 실태조사서명철¹, 김준환¹, 상완규¹, 조정일¹, 신평¹, 백재경¹, 권동원¹Myung Chul Seo¹, Jun-Hwan Kim¹, Wan-Gyu Sang¹, Jung-Il Cho¹, Pyong Shin¹, Jae-Kyeong Baek¹, Dong Won Kwon¹¹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¹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Jeonbuk 55365, Korea**[서론]**

우리나라는 적은 국토면적에 비해 매우 다양한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차별 차이가 많이 있으나 매년 노지 식량작물 생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이상기상에 따른 기상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작물재해보험 등 식량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상기상에 의한 식량작물 피해량을 분석하고 기초 대응방안인 식량작물 재해보험의 현황 등을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량작물 피해량을 조사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범부처 합동 보고서인 ‘이상기후 보고서’를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식량작물 재해보험 실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금융보험원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2015년 이상기상에 의한 피해 면적이 9.3 천ha에 대비하여 2017년에는 13.8 천ha로 높아졌으나 2018년에는 사상 최고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피해면적은 1.6 천ha에 불과하였고 2019년은 47,3천 ha로 피해가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20년도에는 122천ha를 기록하여 이상기상에 의한 비의 피해면적이 가장 높은 연도로 기록되었다. 비에 대한 보험 지급금은 2015년 약 5억 8천만원에서 연도가 지나면서 크게 증가하여 2018년도에는 114.3억원에 달하고 있다. 2019년에는 240억, 2020년에는 173억을 기록하였는데 기상재해가 많았던 2020년보다 2019년이 지급 보험금이 더 많았던 사유로는 비 기상재해의 규모가 커 국가적 배상이 많아 상대적 보험 지급금이 적었거나 2019년에는 병해충에 의한 피해에 따른 보상적인 보험 지급금이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2015년 대비 2018년과 2020년이 상대적으로 발작물 피해면적이 매우 많았는데 2018년도는 이상저온과 폭염 등 온도에 의한 이상기상 발생으로 피해범위가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2019년 4개의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가 많은 해로 피해가 많아 8,374ha의 발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고온에 의한 피해보다 적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2020년도의 피해는 최장 장마와 태풍에 따른 피해가 극심하여 2018년도와 대비되고 있다. 작목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림에서 보면 2018년에 지급보험금이 전년도 2017년 17.5억원에서 147.4억으로 약 8배이상 증가하였으며 기준 연도인 2015년 4.4억에 비해 약 27배가 증가한 수치이며 2019년에는 249.5억이 지급되면서 전년도인 2018년 대비 약 1.8배, 2015년 대비 약 50배 이상 증가를 기록하였다. 기상재해에 따른 식량작물 피해면적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인의 생산안전망의 작물재해보험의 확대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향후에는 피해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적, 정책적 뒷받침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사업(과제번호: PJ015086)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mcseo@korea.kr Tel. +82-63-238-5281